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11회기, 2부

열왕기상 12-13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12장 24절부터 3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로보암의 배도입니다. 12장, 실례합니다. 11장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결과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구절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에서 향후 200년 동안 적용될 패턴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소름끼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어떻게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걷는 왕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이런. 그것이 당신의 비문이 되길 원하시나요? 나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길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 예를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모델에 부응하고 싶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왜? 여로보암은 일년에 세 번씩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2지파의 모든 남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남북전쟁이나 주 간 전쟁, 북부 침략 전쟁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양키 선수가 1년에 세 번씩 리치몬드에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 열 지파를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내 손에 맡기시고 내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 왕조,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친구들이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한 자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사실상 항상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없다면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요? 제가 몇 분 전에 말했듯이 때로는 대답이 매우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경험상 어두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가장 관심이 있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침묵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적 왕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상징을 지닌 아름답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는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황소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송아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송아지 우상의 예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성경의 조롱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들은 크고 인상적인 황소였으며 생명력이 넘치고 성적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신이 무리를 위해 일하고 송아지 무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보다 한 달 늦게 한 해의 큰 개막절인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나는 그가 일자리를 팔았다고 의심합니다. 북왕국에 흩어진 레위인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두려웠다.

거기 보이시죠. 왕국은 이제 아마도 26절에 있을 것입니다. 왕국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주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 진짜? 그렇게 생각? 여로보암아, 그들이 너를 택하였느니라.

그 열 지파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어머.

죄의 어머니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을 느끼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두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성급하게 달려가나요? 글썄요, 정말 매력적인 걸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베델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큰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에게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리겠다. 그리고 나는 북쪽 단 지파에 또 하나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람들은 베델을 향해 남쪽으로 갈 필요도 없을 것이며 아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부족들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관참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보죠. 왜 금송아지인가 황소인가? 바로 광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 인생 초기에 자신의 선택을 지키십시오.

남은 하루 동안 당신을 괴롭히는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역대기에는 이 황소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모세의 후손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켜라. 그들은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장에서, 기브온에서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있기 전에도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 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맙소사, 이집트 왕이 나와 동맹을 맺고 자기 딸을 나에게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아,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글썄요, 신명기 17장을 읽어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황소를 선택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스레드가 통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훼는 어떤 분인가요? 아, 야훼는 위대한 황소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훼는 세상을 함침시킬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가 바로 그 분입니다. 야훼는 이 세상이 아니며, 야훼는 이 세상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점은 일단 그가 선로를 벗어나자 완전히 선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일단 당신이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마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예배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산당에 우리의 우상인 야훼의 산당을 건축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켜라.

당신의 선택을 지켜라. 그래서 32절에서는 7월 초막절이 아닌 8월 15일에 절기를 제정하고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베엘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이 일을 했습니다.

베엘에도 자기가 만든 산당들에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반복되는 말을 들으셨나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달인 8월 15일.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베엘에 쌓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세 번째였고, 세 번째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베델에는 제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8개월 안에는 안 됩니다.

셋째, 왕은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한 후 끝까지 갔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선택을 지키십시오.

내가 말했듯이 여로보암은 그 이후의 북방 왕들이 모두 따를 만한 본을 이곳에서 세웠습니다. 아, 정말 책임감이군요. 얼마나 큰 책임인가.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내가 가진 책임입니다. 당신은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른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